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 최신 관리기법 수놓았다

위탁관리·유지보수·보안·위생 등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총망라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입주인 등 3400명 방문해 큰 관심 보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24~26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설 및 유지보수, 경비 및 보안, 청소 및 위생 등 공동주택 관리산업 관련 79개사 269부스가 참여하고 3일간 아파트 관리소장, 동대표, 입주인 등 3400명이 방문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관람객들은 국내 유일의 공동주택 관리전문 박람회를 통해 아파트 생활 전반에 걸친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각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을 확인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여진 서비스는 ▲시설 유지보수관: 방수, 도장, 소방, 방재, 전기, 기계, 통신, 가스, 배관, 공조, 냉난방, 승강기, 주차시스템, 전기차 충전, 조경, 제어시스템 ▲경비·보안·안전관: 통합관제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홈네트워크, 감지센서, 스마트 출입관리 ▲청소·위생·방역관: 청소, 미화 및 저수조·정화조 관리, 하수구 세척, 음식물 감량기 및 처리기, 방제 및 소독, 수질 및 공기질 측정 ▲기타 서비스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보험, 자문(노무·법률·세무·회계), 자격 및 교육, 관리업무 전산관리, 입주지원 서비스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산업을 총망라했다.

위탁관리 중요성 알려

박람회 현장에서 보기 힘든 위탁관리회사들의 참여는 아파트 동대표, 입주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내 1위 공동주택 관리기업인 우리관리가 참여하면서 박람회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병용 우리관리 회장(가운데)이 VIP 관람객들을 맞이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관리 사업장 1411개소, 관리세대 100만호, 관리 면적 1억1854㎡, 업계 최상위 기업 신용평가 등급(AA+)을 자랑하는 우리관리는 집합건물 종합관리 기업으로서 공동주택 위탁관리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안·미화 ▲건축설비 유지관리 ▲방재 ▲커뮤니티 ▲아파트ERP솔루션 ▲종합 임대관리 ▲컨설팅·리서치 등 다양한 주거문화서비스를 소개했다.

우리관리 관계자는 관람객들에 “온라인 관리업무 종합 플랫폼 ‘우리지니’를 기반으로 본사 전문인력 200여명이 현장 지원·자문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통해 우수 인재를 선발·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 첫날인 24일에는 노병용 우리관리 회장도 행사에 함께해 업체·협회 등 많은 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졌다.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관리회사인 동우씨엠, 하나종합관리, 디이씨오도 전시에 참여해 위탁관리 중요성을 함께 알리고 발전된 공동주택 관리기법 등을 홍보했다.

대구를 본거지로 삼고 서울과 경북 영천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동우씨엠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설물 종합관리 분야와 HR·아웃소싱, 교육서비스, 엔지니어링, 전문건설, 부동산개발, 주택임대관리 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주택건설 매니지먼트그룹이다. 동우씨엠그룹은 3200여명의 임직원과 6개의 계열사(동우씨엠, 동우라이프산업, 동우종합건설, 동우씨엠건설, 하이엠알오, 세명이앤씨)를 중심으로 시행, 시공, 유지관리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바일 관리사무소 ‘세이버스온’ 서비스를 특히 홍보했다.

하나종합관리는 최근 부산의 주요 대단지들을 잇따라 수주하며 부산, 경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 전국 321개 단지, 18만4961세대를 관리하고 있다.

하나종합관리 관계자는 “내 집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정확한 점검, 적절한 보수, 최소의 비용, 쾌적한 환경조성, 완벽한 사고수급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재연 하나종합관리 부사장이 관람객들에 회사 설명을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이씨오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200여 사업장을 관리하며 오랜 세월 쌓아온 고객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와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 분야별 핵심 인력과 차별화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입주인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디이씨오 송한호 이사가 회사 설명을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도장·방수 공법 우수성 자랑

대표적 도장·방수기술 회사인 넷폼알앤디, 수퍼크랙실, 펜테크, 포에이시스템과 현지이앤씨, 센텀이앤씨 등 시공사들은 각 특허공법의 특징점에 대해 홍보하며 고객들의 선택을 도왔다. 넷폼알앤디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책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 50개, 유지보수관련 제품 80여개 등의 POUR공법과 발주자 입장에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POUR솔루션을 전시하고 소개했다.



넷폼알앤디 부스. [아파트관리신문]

수퍼크랙실은 부착성·융착성으로 완벽하게 부착하는 퍼티 등 균열보수 후 10년 이상 우수하게 유지된 실적이 있는 검증된 시스템을 자랑하고 철근부식으로 인한 붕괴를 막기 위한 지하구조체 방수의 중요성과 유독성 아크릴계 주입방수재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홍주환 수퍼크랙실 방수연구소장이 관람객들에 주요 특허공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펜테크는 차열효과가 우수한 루프가드, 월가드 방수페인트, 자극적인 냄새를 줄이고 소음 및 미끄럼 방지 성능을 높인 지하주차장 바닥재 펜터가드 등을 전시해 오래가고 입주민 민원이 적은 유지보수기술에 대해 알렸다. 또한 최근 개발한 AI 기반 스마트 누수진단 앱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앱은 누수현장 사진을 찍어 올리면 펜테크의 무수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현상과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까지 내려줘 누구나 쉽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펜테크 관계자가 AI 기반 스마트 누수진단 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포에이시스템은 도장·방수·크랙보수·콘크리트 보수 4개 분야에서 보유한 가성비·강한 내구성·친환경·쉬운 시공법 등 4개 장점을 내세우며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대회 은상·특별상 수상, 서울 국제발명전시회 금상·동상 수상, 높은 등급의 기술기업 인증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누수 측정·방수 도막 측정·콘크리트 소지면 진단 시스템 등 비파괴식 누수 진단과 방수 성능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소중 포에이시스템 대표가 내구성 높은 아파트 도장·방수 공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관리에 자리잡은 AI

이번 공동주택관리산업박람회는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최신 관리서비스가 산업에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에스케이시큐 부스에서 김홍립 대표가 관람객에 스마트 출입관제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에스케이시큐(SKSECU)는 공동주택 내 방문차량 관리, 주차 단속 등 다양한 주차 문제를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시스템으로 해결해주는 스마트 출입관제솔루션을 선보였는데 특히 어떤 주차차단기라도 전면 철거 없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좋은엘리베이터는 AED(자동심장충격기)가 내장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AED를 꺼내는 순간 자동연동시스템 작동으로 지정된 연락처나 119로 자동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엘리베이터'로 주목받았다.

한민경테크는 AI를 활용한 사람감지, 얼굴감지 등 기능과 사각지대 없는 카메라 각도, 밤낮 차이 없이 밝은 화질 등을 자랑하는 아파트 CCTV와 보안 솔루션을 전시했다.



한민경테크 부스에서 한민경 대표. [아파트관리신문]
 에코캐치는 천연 유인 방향제로 해충을 유인해 퇴치하고 고객이 설정한 주기대로 끈끈이롤이
 자동교체되는 'AI 알림 프리미엄 포충기'를 소개했다.
 넷브리즈와 아파트리 등의 스마트 관리 플랫폼들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관리 앱을 통
 한 관리사무소 일정 관리, 시설 관리, 차량 방문 예약, 자동 출입 등은 이미 아파트에 일상이



돼가고 있었다.태양의 화재 구조손수건과 숨마스크

이번 박람회에서는 입주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다수 참여했는데 더키피어의 전기차 화재진압 솔루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일리온의 엘리베이터 버튼 비접촉 터치 솔루션, 태양의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과 방연마스크,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모리스앤코의 이동식 물막이, 약취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고 벌레발생을 억제해 입주민 건강을 지키는 비케이위너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용 정화장치 등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그 외 지클랩의 에어컨 분해청소 등 홈케어 공동구매 서비스와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 입점하는 카페일분의 음료 서비스, 관리주체와 입주민 권익을 모두 생각하는 부경화재보험 등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에 관람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카페일분의 아파트 커뮤니티 내 무인카페용 음료머신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관리신문]

